5천여 한마음선원 불자 정진 다짐

11월 2일, 37차 수계법회 봉행
223명 수계하고 불제자 거듭
4600여 명 연비받고 '재발심'
가족 참가자 '세대전승' 모범


한마음선원은 11월 2일 안양본원에서 '제37차 신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이사장 혜수 스님이 어린이 신도에게 연비의식을 하는 모습.

안양=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선원 신도들이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하고 진정한 불제자로 나아가겠다고 굳게 서원했다. 계를 받아 지닌 신도 대중은 이날 불제자로서 첫걸음을 당당하게 내디뎠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11월 2일 안양본원에서 '제37차 신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대행 선사를 증사로, 이사장 혜수 스님을 계사로 진행된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223명이 수계하고 불제자로 거듭났으며 4600여 명이 연비를 받고 불자로서 발심을 되새겼다.

대행 선사는 영상법문을 통해 수계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실천을 설했다. 대행 선사는 "오계를 받았다는 계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오계를 받아 지녔더라도 남의 탓을 하거나 말을 함부로 한다면 안 될 일"이라며 "가족과 이웃에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 안으로 모든 것을 맡겨놓고 놓는 사람, 망상이 있더라도 망상에 걸리지 않고 거기 놓고 가는 사람"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한가닥 바람결 같이 왔다가 바람결 같이 흩어져서 다시 모이면 다시 흩어지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며 "그러니 몸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갈 곳도 없다는 그 사실을 바로 터득하라"고 대중에 당부했다.

혜수 스님은 "대행 선사께서는 '오계를 받아 지니는 것이 일체제불과 다 통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오계를 받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이 생에 최상승의 길을 걷는 것이고 차원이 아주 높아지는 행위"라고 오계 수지와 실천을 강조했다.

이어 "오늘 처음 계를 받은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며, 연비를 받으신 분들은 오계 수지와 실천을 발심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이날 수계자들은 바른 계행으로 진정한 대장부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다. 수계 동참자들은 능오 유창열 씨(41, LA지원 신도)가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생활 속 계율을 따르며 감사할 줄 알고 자비의 등불을 밝혀 방황하는 이들에게 마음의 길을 인도해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깨닫겠다"면서 "수계자들은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면서 문 없는 문으로 길 없는 길을 따라 대장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발원했다.

안양본원과 국내외 지원에서 5000여 명이 동참한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등 가족 단위 동참자가 많아 눈길을 끌었다. 이는 '불교 세대 전승'의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어머니 박성령(45, 부산지원) 씨와 수계법회에 동참한 김은재(8, 부산지원) 군과 김아림(7, 부산지원) 양은 "오계를 받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고,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부처님과 약속했다"고 다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창건 35주년을 맞는 LA지원의 신도 40여 명이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수계법회를 시작으로 전국 지원 성지순례를 진행해 11월 9일 회향할 예정이다. 신도를 대표해 발원문을 낭독한 LA지원 신도 유창열 씨는 부모님과 수계법회에 동참했다. 유 씨는 "수계법회로 발심해 대자유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아버지 유홍준(79, LA지원) 씨는 "아르헨티나 지원에서 대행 선사의 법을 만나 배우고 LA로 공부의 거처를 옮겨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나이가 있으니 아마도 마지막 동참이 아닐까 싶다. 온 가족이 함께 계를 받아 감회가 새롭고 기쁘다"고 말했다.

어머니 송윤순(76, LA지원) 씨도 "연비를 몇 번 받았지만 오늘 같이 감격스럽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경험은 하지 못했다. 대행 선사의 법이 더 진하게 맺어지는 것 같았다"고 감동을 전했다.

LA지원 순례단에 동참한 한행(80, LA지원) 씨는 "본원에서 부처님과 대행 선사를 뵙고 계를 받을 수 있어 환희롭다"면서 "부처님 법대로, 대행 선사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불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준한 스님, 뉴욕 조계사 주지 임명…'힙불교' 미국으로

10월 31일, 총회서 만장일치로 결정
준한 스님 "숭산 스님이 주신 선물"
JustBe글로벌 프로젝트 중심 기대



젊음의 거리 홍대에서 '힙한' 불교 열풍을 이끌고 있는 JustBe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사진〉이 숭산 스님의 외국인 포교 원력이 깃든 미국 뉴욕 조계사의 새로운 주지로 임명됐다. 홍대선원에 이어 'JustBe 히말라야'에서 글로벌 수행도량을 일구고 있는 준한 스님의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발걸음이 세계의 심장부로 불리는 뉴욕까지 닿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뉴욕 조계사는 10월 31일 경내에서 열린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준한 스님을 새 주지로 임명했다.

뉴욕 조계사는 숭산 스님이 1978년 뉴욕 퀸즈의 한 가정집에 법당을 마련하면서 시작됐다. 숭산 스님의 원력을 받든 묘지 스님은 2003년 뉴욕 맨해튼 한복판으로 사찰을 옮겨 왔다. 법회뿐 아니라 참선, 다선(茶禪) 명상, 선요가 명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데 든든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20년 전, 전 주지 묘지 스님을 통해 뉴욕 조계사와 인연을 맺은 준한 스님은 이후 한국에서 숭산 스님 법맥 아래 출가수행을 시작했다. 준한 스님이 처음 출가를 서원한 곳이라 이번 주지 임명은 의미가 크다.

준한 스님은 "뉴욕 조계사는 20년 전, 출가 직전 마지막 기도처"라고 의미를 전하며 "숭산 큰스님의 원력으로 세워진 맨해튼 유일 한국 사찰 뉴욕 조계사의 이사장 겸 주지 소임을 맡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이어 "JustBe히말라야 도량 창건을 앞두고 큰스님께서 주신 미션이자 선물 같은 느낌"이라고 감회를 전하며 "앞으로 JustBe글로벌 프로젝트의 중심이 될 곳"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연화사의 따듯한 점심식사, 친구한테 자랑할래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청년밥心'
11월 4일 연화사서 80명 공양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지난해부터 대학가 인근 사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밥심'이 입소문이 나면서 매회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11월 4일 연화사 공양간에서 학생들이 점심공양을 하는 모습.

"오늘 절에서 점심 먹은 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려고요. 사찰음식 맛도 기억도 하고 친구들한테도 자랑할래요."

11월 4일 점심시간, 서울 연화사 공양간에서 만난 이지율(경희대 사회학과 4) 학생. 배식판을 식탁에 놓자마자 수저보다 휴대전화를 먼저 꺼낸 지율 학생이 연신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만족스러운 사진을 건진 후에야 식사를 시작한 지율 학생은 놀라운 얼굴 표정으로 맞은편에 앉은 친구에게 말한다. "이 버섯탕수육이랑 양배추 정말 맛있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이 청년들에게 따뜻한 점심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부터 대학가 인근 사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밥심'이 입소문이 나면서 매회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연화사에도 이날 사전 예약자 60명을 훌쩍 넘은 80여 명의 학생들이 공양간을 찾았다.

'청년밥심'은 학자금 대출, 높은 주거비, 불안정한 일자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불안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한 끼 공양을 제공하고, 사찰 공간에서 쉼과 대화를 나누며 삶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날 연화사 점심공양에도 맑은 순두부, 청포묵오이무침, 과일세발나물 유자샐러드, 버섯탕수육, 모듬쌈 등이 제공됐다. 연화사 신도회의 봉사와 불자들의 후원이 만들어 낸 정갈하고 따뜻한 사찰음식이다.

음식을 맛본 학생들은 "엄마가 해준 건강한 집밥 느낌"이라며 "공짜로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라고 만족감을 표했다. 불교가 더욱 친숙하게 느껴진다고도 했다. 김동현(경희대 경제학과 4) 학생은 "영양 가득한 식사를 제공하면서도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모든 분들이 친절하게 맞아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크다"면서 "무교인데 불교를 종교로 해야 할까 싶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날 청년밥심 배식에 함께 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연화사를 '동대문구의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청년밥심'은 청년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앞으로 '청년밥심'에 동참하는 사찰을 전국적으로 발굴, 청년들의 마음 건강 회복과 불교문화 경험 기회를 더욱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교법사 창설 80돌 "지혜·자비 교육현장"

10월 31일, 동국대 정각원서 기념
불교교육연합회 총회 및 발표회도



교법사들이 올해 창설 80주년을 맞아 교육을 통한 청소년·청년 전법을 발원했다. 교법사단(단장 양동효)은 10월 31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정각원에서 '교법사 창설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26개 학교, 11개 법인에서 30여 명의 교법사들이 참석했다.〈사진〉

양동효 교법사단장(의정부 광동고)은 인사말을 통해 "청소년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진로에 대한 고민,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 정서적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불교는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쉼표를 제공해 주고 성장의 등불을 밝혀 주어야 한다"며 "우리 교법사들이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포교국장 도진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교법사들의 공로와 헌신은 오랜 세월을 거쳐 우리 사회와 한국불교의 미래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청소년들과 세상에 전하는 등불이 되어 달라"고 격려했다.

이날 교법사들은 김가연 광동고 교법사가 대표 낭독한 발원문에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의 등불을 놓지 않고 청소년들의 마음에 맞는 언어와 방식으로 접하며 자비와 지혜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교육현장이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문화관 초허당세미나실에서 불교교육연합회(회장 윤재웅, 동국대 총장) 임시총회 및 교학연구발표회가 열렸다. 신중일 기자

난방키트로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

동행 '난방키트 지원 캠페인'
10만원 상당 필수품 구성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추위와 싸워야만 하는 이웃들에게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이 난방키트로 따뜻한 희망을 전한다.

아름다운동행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난방키트 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온풍기, 겨울이불, 전기매트 등 10만원 상당의 겨울철 필수품으로 구성될 난방키트 제작에 사용될 예정이다.

후원은 아름다운 동행 홈페이지(http://dreaminus.org)를 통해 계좌이체·신용카드·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후원액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모금 전액은 난방키트 제작 전달에 사용된다. 02-737-9595

후원계좌:국민은행 023537-04-004302(예금주:아름다운동행)

임은호 기자

'나는 절로' 결혼 1호 커플 탄생

백양사서 맺어진 인연 결실
결혼 앞두고 무공 스님에 인사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복지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가 배출한 결혼 1호 커플이 첫 만남을 가진 장성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를 찾아 주지 스님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 복지재단에 100만원을 후원하며 '나는 절로'의 발전을 염원하기도 했다.〈사진〉

지난해 11월 백양사에서 열린 '나는 절로'에서 인연을 맺은 손길동(참가명)·임길순(참가명) 커플이 11월 23일 결혼식을 앞두고 11월 1일 백양사를 찾았다.

무공 스님은 "평생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는 방법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서로 간의 마음을 살펴 주는 것"이라면서 "아이 많이 낳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1호 커플에게 금일봉과 함께 백양사에서 자란 보리수로 만든 염주를 선물했다.

손길동·임길순 커플은 "복지재단과 백양사의 큰 배려로 결혼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잘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복지재단에 '불교사회복지지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임은호 기자

빛나는 '2025 슈퍼스타 종로' 성료

선명상 그룹 '비텐스' 공연
복지기여자 표창 진행도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스님)이 경로의 달을 맞아 10월 30일 진행한 '2025 슈퍼스타 종로'가 마무리됐다.〈사진〉 올해로 제26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순간, 빛나는 종로'를 주제로 마련됐다.

조계종 선명상 프로젝트 그룹 '비텐스'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복지기여자 표창 수여식으로 이어졌다.

2부 세대공감 공연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구성됐다. 아동·청소년팀, 청년팀, 중장년팀, 세대통합팀 등이 세대 간 공감과 화합의 무대를 선보였다. 3부 특별공연으로 트로트 가수 김소유의 무대가 더해져 현장의 열기가 뜨거워졌다.

송정인 수습기자